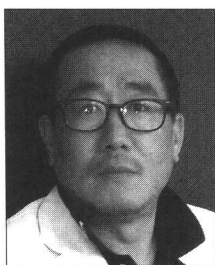


## 낙농육우인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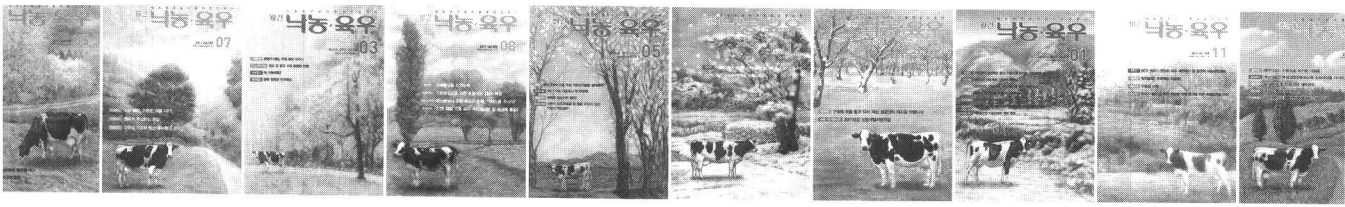
**박창수**  
월간 낙농육우 '콩트' 코너 작가  
(자유기고가)

중학교 재학시절 창문 밖으로 맞은 편 산을 바라보면 비탈진 밭 위로 파란 풀들과 그 위로 먹이를 뜯으며 이리 저리 움직이는 여러마리의 젖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빨간 지붕을 한 사일로와 축사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미술 책에 나오는 목가적인 전원의 풍경 그대로였지요. 막연하게 ‘참 아름답다’, ‘외국의 어느 목장같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목장의 정경이 왜 그토록 아름답게 보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젖소가 한 두마리가 아니라 이십여마리가 넘었고 소들이 서너마리씩 떼를 지어 움직였기 때문에 쓸쓸함이나 외로움보다는 정겨움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보다는 둘, 둘 보다는 열이 좋은 것은 혼자자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함께 간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간 월간 낙농육우는 낙농인들의 동행을 이끌어오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낙농인들의 모든 것을 대변해 온 매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육우가격, 우유가격, 사료가격, FTA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낙농육우인들의 목에 힘이 필요할 때마다 소리 소리들을 모아 화성기가 되어 주고 새로운 정책과 길을 제시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필자가 처음 원고를 기고하던 1996년 그 당시만해도 월간 낙농육우는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업계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지만 구성의 묘와 내용의 다양성 그리고 잡지가 갖는 교양 문화적 기능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후로 16년이 더 흘렀고 어느새 서른 한돌을 맞이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의 잡지들은 잡지문화가 발달하기에는 다소 척박한 환경 속에 처해있는지



라 수명 또한 그다지 길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년을 한결같이 달려왔다는 것은 그 존재이유만으로도 인정과 존경받을만한 일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전문매체로서 한국낙농육우협회의 대외적인 얼굴이 되는 한편 낙농육우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 문화 등을 고루 고루 전달함은 물론이고 낙농육우인들의 화합의 끈이 되고 있습니다.

본 잡지의 필자 중 한사람으로서 월간 낙농육우에 갖는 애정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월간 낙농육우를 지켜온 협회와 제작실무를 맡고 있는 홍보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갈채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낙농육우인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끌어줄 전문지로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

